



경북도, 청년창업자 30명 뽑아 사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

지난 26일 경북테크노파크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 경북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사업' 입소식 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북도제공) 경북도가 유망한 청년CEO를 발굴·육성하고자 '2024 경북 청년 CEO 심화·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우수 창업 아이템을 가진 유망 창업자를 발굴·지원하고자 경북테크노파크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지난 달 진행된 모집에선 102명의 청년CEO가 지원, 3.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 기업들이 꿈과 열정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내 흥준표 뜻대로... 박정희 동상 건립 순항

대구시의회, '박정희 동상·공원 조례' 기획행정위 통과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민단체 및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애초 대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과 관련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업을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해 대구시의 독단적 행정행위를 제한했다.



시의회는 새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흥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3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구와 광주가 달빛동맹으로 서로 힘을 합치고 있는 마당에 대구와 광주를 대표하는 두 정치 거목의 역사적 화해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따라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대표도서관 공원을 각각 박정희 광장과 박정희 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상도 건립한다.

흥 시장은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또 경쟁화될 것이라며 대구시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대구시는 관련 예산 14억 5000만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만이 가진 역사적 정체성인 박정희 산업화 정신과 2·28 자유 정신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들은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를 꾸리고 반대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의 과오가 있는데다 대구와는 지역적 연관이 크게 없고, 인근 구미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데 굳이 대구에 박 전 대통령 광장과 공원을 동상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조례 제출 전 입법 예고 기간에 8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지만 대구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비판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손경찬 대구광역일보 제2대 회장에 올라

자유총연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전국 최연소 군의원 타이틀 거머쥐 지속 성장 향한 '새 대구광역일보' 만들기 위해 신(新)경영 펼친다 선언



로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등을 수상했다. 손 회장은 정치인이기도 하다.

손 회장은 과거 삼성그룹 비서실에 입사해 10여년간 19개국에서 선진 정치제도를 배웠다.

대구광역일보가 창간 28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환란 도야에 뜻을 올렸다.

(주)대구광역일보는 지난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손경찬(사진·66) 자유총연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손 회장은 영덕군 영해면 출신으로 7대 경북도의원, 대통령소속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손 회장은 한중 교류 활동에도 한 몫하고 있는 인물이다.

한중도시우호협회 대구지회장을 맡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한 획을 그었고 있다.

뮤지컬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구가 이제는 뮤지컬 공연개최실적이나 위상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는데 일조한 공로자다.

시인·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손 회장은 '제17회 영호남수필문학상'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지역사회 봉사 활동 공로

지방지치가 시작될 무렵인 1990년 서른 살의 나이로 초대 영덕군의회에 출마, 최연소 군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국내 최초로 행정공무원징계조례안을 발의, 화제를 모아 의정활동에 큰 족적을 남겼다.

손 회장은 지속 성장을 향한 '새로운 대구광역일보'를 만들기 위해 신(新)경영을 펼칠 것이다"고 선언했다.

그는 '독자가 원하는 신문', '독자가 바라는 신문', '독자가 생각하는 신문'만이 지방신문의 산실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본지가 내건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답게 경영진은 물론, 모든 임직원과 손잡고 대구광역일보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의회 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부결...

김승수, "현명한 결정 환영" "시의회 현명한 결정 감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구시의회가 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 처리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대구시가 제출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부결했다.

기행위원들은 철곡행정타운터는 신청사 건립과 관계가 없으며 해당 터를 대구 북구 주민들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터는 대구 강북지역 최고의 요충지

로서 강북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 및 문화 시설 설치에 터가 활용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25일 대구 북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 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 대책위원회가 철곡3지구 공영무류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부지 매각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회 부결 처리와 관련,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주민들의 호소를 적극 수렴해 지역 숙원사업인 대형 거점 유통 복합 도서관 건립 등 주민 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공공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미경 기자

예천군, 회룡포 100억 투입 관광거점 도시 건설

경북도내 유일 회룡포 2024국가유산 경관개선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예천군 회룡포가 국가유산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회룡포는 최근 문화재청 신규사업인 '2024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공모에 경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군은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회룡포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기반 시설 개선을 지원해 회룡포를 명품 관광지로 브랜드화한다.

2015년 명승으로 지정된 회룡포는 내성천 줄기가 마을을 350도 휘감아 돌아나가면서 마을 주위로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산과 물, 모래사장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곳이다.

마을 전체가 아름다운 정원처럼 조성돼 봄이면 유채꽃과 청보리가 가득 피어 축제가 열리는 등 1년 내내 관광객 발길이 이어진다.

마을 건너편 비룡산에는 회룡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 마을을 휘감는 물길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군은 제1전망대에 이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비룡산 제2전망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2전망대는 '뽕정을 담은 공간'이라는 주제로 층마다 새로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극장 같은 전망대로 공연과 휴식이 가능한 독특한 형태의 전망대로 꾸미겠다.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높이 30m, 연면적 1268㎡ 규모 전망대와 109㎡ 전망데크가 조성된다.

제2전망대와 삼강문화단지지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사업도 추진 중이다.

임도 설치, 등산로 정비, 숲속 어드벤처, 원산성 습터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회룡포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예천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며 "경관개선 사업, 삼강문화단지 및 권역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예천 명소가 더욱 빛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명욱 기자

경주 30.6도, 대구·경북 올해 들어 가장 더웠다

맑은 날씨에 햇볕이 더해지며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28일 대구·경북지역은 맑고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갔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이날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았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송 8도, 봉화·영양 9도, 안동 10도, 성주 11도, 상주 12도, 영덕 13도, 대구 14도, 포항 16도도 전날보다 1도가량 높고, 낮 최고기온은 김천·의성 31도, 대구 30도, 안동·경주 29도, 영천 27도, 포항 23도 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윤용찬 기자



동구청, 안심습지에서 생태체험 학습 운영

동구청은 오는 10월까지 안심습지에서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학습을 실시한다. 탄소 먹는 하마라 불리는 습지에서 전문 생태해설가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어떤

동·식물이 사는지 관찰하고 나무로 만든 다양한 모형 곤충 조립하기 등 자연과 교구를 통한 다양한 놀이로 운영된다. 올해는 200명에서 420명으로 확대해 총 15회

실시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도심지 인근 생태학습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청두시 당 서기와 만찬 회동

양 도시간 직항 노선 개설 친선 축구경기 추진 협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0월 대구를 방문한 스샤오린(施小琳) 중국 쓰촨성 당 위원회 부서기 겸 청두시 당 위원회 서기(이하 당 서기)와 청두에서 다시 한번 회동했다. 시는 해외 27개 자매우호협력도시와 실리적·전략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교류가 활발한 도시 중 하나인 중국 청두시를 방문했다. 청두시는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의 핵심 전진기지로서 중국 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인문과 신기술을 결합한 최고의 경쟁력을 갖

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판다와 유비의 축나라 수도'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구시는 청두시와 지난 2015년 11월 10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고위급인사 상호방문과 무역사절단, 물, 환경 등 경제·산업을 비롯해, 문화·예술, 교육 분야까지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 지도자 간 상호방문을 통해 최근 대구시와 청두시가 교류를 집중해 온 신공항 건설, 교통·물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했고, 특히 청두에 대구 해외사무소 개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구-청두 간 직항노선을 개설하고, 내년 청두시와의 자매도시 체결 10주년을 맞이해 대구FC와 청두 룽청FC 간의 친선 축구경기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스샤오린 당 서기의 중국 내 행보에 축원과 자매도시인 청두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양 도시 간의 우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한국문화체험관, 우수 웰니스관광지 선정

수성구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웰니스관광지'에 신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6개 테마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경험이 어우러지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장소로 우수 웰니스관광지로 선정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지역 특산물과 전통 조리법을 통한 특별한 식도락 경험과 지역 문화·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있게 전달하는지 보는 '푸드' 테마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만촌동에서 개관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이름 그대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한 곳이다. 동예보감에 기초한 건강향약식 음식 만들기와 전통주 만들기로 한식의 맛과 멋을, 나아가 고운

한복을 입고 배우는 다례, 전통활쏘기 체험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 문화까지 만끽할 수 있다. 우수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외 홍보, 컨설팅 및 교육, 관광 상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전통문화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우수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돼 뜻깊다"며 "다른 도시에는 없는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관광지로 만들어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예스투북백 뷰라운지의 재선정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은 우수 웰니스관광지를 보유하고 된 수성구는 웰니스관광을 이끌어갈 선봉으로 우뚝 섰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의회, 선진정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성료

달성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7박 9일 간의 일정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마쳤다. 이번 연수는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배양하고,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균형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주요 시책 수립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수단은 스위스의 주민자치 총회 '게마인데'와 이탈리아 밀라노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토스카나 지역의 와이너리 농장을 방문해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을 직접 시찰했다. 특히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주민

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탈리아의 6차 산업 및 농산물 유통 우수 시설을 통해 우리 군 농업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기회를 가졌다. 서도원 의장은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와 농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수 결과와 얻은 보고서는 달성군의회 홈페이지와 관련 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핸드팬 클래스' 프로그램 개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주민체육관은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신규 프로그램인 '핸드팬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초 신설된 핸드팬 클래스 강좌는 6월 말까지 주민체육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매주 금요일 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한 반당 1시간씩 총 3개반이 진행된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핸드

팬은 힐링 사운드 타악기로 알려져 있으며 특유의 소리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소문나 요가, 명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또한 핸드팬은 오션지 악보가 아닌 숫자와 기호로 된 악보를 통해 연주할 수 있어 음계나 코드를 모르거나, 악기 연주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 대구 편입 1주년·오이데이 기념 특판행사

대구 하나마트 성서점서 군위군 우수 농산물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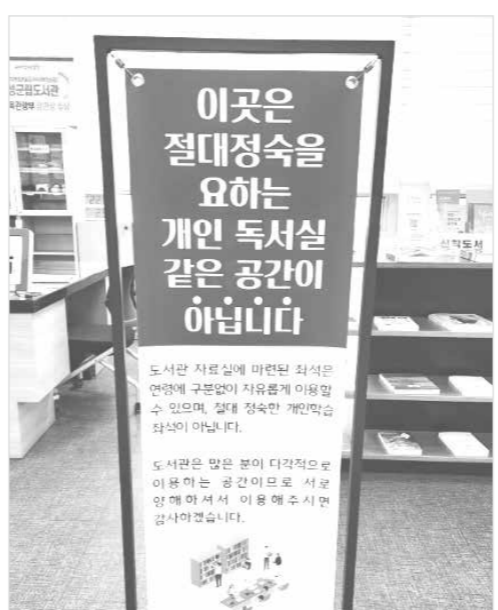
군위군 대구시 편입 1주년 기념 오이데이 기념 가시오이 특판 판매 행사가 지난 28일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관내 우수 농축산물 홍보 행사가 지난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 동안 대구 농협 하나마트 성서점에서 열렸다. 군위군과 군위군조합공동법인이 주최·주관하며 군위군수를 비롯한 군위군 공무원, 지역농협

장, 군위 오이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대구시 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도 참여해 군위군 대구 편입 1주년 축하 및 농산물 홍보 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하나마트 성서점 마트 회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단지 및 문자발송으로 홍보했다. 가시오이 2000봉지를 군위군수가 방문하는 오후 4시부터 990원에 할인 판매했다. 군위 가시오이는 지역적으로 적합한 기후조건으로 색깔이 진하고 단단하며 아삭한 식감과 향

이 좋고, 비타민C와 칼륨 및 기타질이 풍부해 체내 노폐물과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며, 숙취해소 및 탈수현상 완화에 탁월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1주년에 맞추어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군위군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하며 도농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농산물 유통 시장 개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구시와 군위군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며 "5월 2일 목요일 15:00부터 오이데이 행사가 한번 더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개인 독서실 아냐" 달성군립도서관 공공장소 역할 논란

공부하러 온 학생들 발길 돌려



대구 100인의 아빠단 출범

대구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함께하는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대구 100인의 아빠단' 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구 100인의 아빠단'은 3-7세 자녀를 둔 초보 아빠들의 육아 모임을 2019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째를 맞았다. 아빠단은 8개월간 매주 주어지는 온라인 육아 미션 수행,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아빠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플루언서(Influencer)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은 아빠단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벅스 육아실선언문 낭독 스텝크리에이션 활동 등 스텝지킴 'Tools'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립도서관이 행정편의식으로 운영된다느 지적이 일고 있다. 도서관 앞에는 '개인 독서실이 아니다'는 문구와 함께 시험기간을 맞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구 10만 명의 젊은 도시, 다시금에 위치한 이 작은 규모의 도서관은 1층에 영유아를 위한 공간을, 2층에는 학생과 성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도서관은 지역적 특성상 학생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학습 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도서관 측은 학생들이 학습을 위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다시금도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주말과 휴일을 맞아 달성군립도서관을 찾았으나, 개인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곳곳에 있어 눈치가 보여 여점으로 돌아갔다"며 군립도서관의 행태에 실망감을 표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시험기간과 같이 학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에는 학생들에게 더욱 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도서관이 개인 학습 공간의 제공에 있어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도서관의 본질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여은 기자

중구청, 상하이 국제 의료관광박람회 참가

중국시장 겨냥 의료관광 홍보

중구청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국제 의료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광저우 정합회의전시서비스유한공사(广州正和会展服务有限公司)가 주최한 제20회 상하이 국제의료관광박람회는 매년 중국 상하이, 베이징, 청두 등 다양한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상하이 박람회에는 15여개국 300여개 부스가 참여했다. 개막식에서 류규하 구정장은 대구 중구의 세계적인 의료기술과 매력적인 관광지를 홍보하며 많은

분들이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구청은 3일간 이어진 박람회장에서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트들과 상담을 가지고 관광 홍보물과 국내 병원 홍보 자료를 활용해 중구의 의료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다. K-열풍과 함께, 한국의 성형외과, 안티에이징, 피부관리 등 뷰티분야 기술의 세계적 유행세로 3일간 이어진 박람회장에서 중구의 홍보관은 늘 방문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류규하 구정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구 중구가 의료관광 선도시임을 알리고, 중구를 방문하는 의료관광객들에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경북도 5급 승진자들 '리더과정' 전국 1·2위 차지

경북도의 5급 승진자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관 승진리더 과정에서 전국 1위와 2위를 모두 차지했다. 5급 승진리더 과정은 중간관리자로서의 정책기획 및 리더십 역량을 증진하는 필수 기본교육으로 지난 달 4일부터 1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446명의 5급 승진자들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 경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이현지 사무관이 1위, 장도환 사무관이 2위를 차지했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의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도가 매주 화요일 새벽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하는 '화공특강'은 지난 6년간 278회가 열렸다.



지난 25일 제주 선히호텔에서 열린 제10기 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회 모습.

이철구,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중앙정부 사무 지방이양 지방정부 권한은 강화 지방의회 권한 제자리...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

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한 말이다. 그는 지난 25일 제주 선히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 회의

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

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부담 해소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건의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꾀하는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월 1회 정기회를 열고 있다. 김성용 기자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4곳 선정...

밀과노닐다·민속주안동소주 갈기산포도농원·다도참주가 지역 대표 문화공간 육성...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접점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육성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4곳이 신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 전통주 시음 및 만들기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 공간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양조장은 총 4곳으로, 안동시 소재 '밀과노닐다'와 '민속주안동소주, 충북영동군 갈기산포도농원, 전남나주시 '다도참주'가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천한 18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양조장의 역

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주변 관광요소, 업체 시설 품질인증 보유 여부, 각종 전통주 품평회 수상 이력 등 양조장의 기능성과 체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양조장은 2년간 주류 및 관광 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으로 체험장 및 판매장 등 환경 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등 홍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관광 상품화 등이 지원된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이번에 신규 지정 업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59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통주 만들기 체험 및 시음, 인근 관광 연계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의 전통주에 대한 접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최근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양조장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 컨설팅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홍준표 "종일 편파방송 한다고 종편"...

'종편 비난 조심하시라' 개가 짊어도 기차는 간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지지자들이 몇몇 종합편성채널(종편)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거칠게 비판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하자 특유의 '개가 짊어도 기차는 간다'고 외쳤다.

김정공 '빛나두' 특화 육성 경북도, 생산단지 조성 박차



경북농업기술원은 반짝 반짝 빛나고 속 푸른 신 품종 김정공 '빛나두'로 상주 시 일대 특화단지 육성에 앞장서며, 종자를 보급해 지역 특화 브랜드로 육성한다. 신 품종 '빛나두'는 수량 258kg/10a로 기존에 개발된 김정공 '청차3호(242kg/10a)' 대비 8% 높은 다수성이고, 100립중이 40.5g으로 굵고 속의 푸른색이 진한 김정공이다. 콩 껍질에 백분체가 없어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젊은층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장점이 있다. 2011년 선홍콩과 재래 수 집 유색콩을 교배해 육성한 '빛나두'는 농촌진흥청 신규 등록 품종으로 선정됐으며, 재배시사를 받은 후 2023년 품종 보호등록을 완료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신 품종 '빛나두'의 재배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상주 지역 농가에 매년 기본식물 종자를 100kg 보급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도기치는 간다고 외쳤다. 28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는' "요즘 종편 두 곳이 패널들을 앞세워 홍시장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더라"며 "이틀 보니 홍준표 시장의 독고다이 정치를 기존의 특권 카르텔들이 재일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 두 번 다시 당하지 마시라"고 했다. 29일까지 중국 청두 출장 중인 홍시장은 "종일 편파방송하는 곳을 종편이라고 이른다"며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헛한 자신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지 알 필요 없지만 3류 평론가를 내세워 종일 편파방송하는 건 전과방비"며 일부 종편의 말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고 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지는 모두 '죽을 각오로 총선을 지휘하지 않고 대권놀이'에 취한 한동훈 전 위원장 탓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차기 대선을 노리는 홍시장이 강력한 경쟁자인 한 전 위원장을 흔들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조미경 기자

대구은행, 서구 지역민과 함께하는 무료급식



DGB대구은행은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 대구 지사와 함께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행사를 가졌다. 대구은행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무료급식 행사

에는 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DGB동행봉사단과 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자원봉사자 등 약 5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밥과 반찬, 국을 식판에 담아 전해드리며 점심식사를 제공, 400여명의 서구지역민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DGB대구은행 김용덕 대구 3본부장은 "따뜻한 점심식사 대접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주시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DGB대구은행은 지역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미경 기자

경북교육청, 1수업 2교사제 맞춤형 기초학력 강화

초·중 협력 강사 128개교 147명 배치 맞춤 지도 강화

경북교육청이 도내 초·중학교 128교에 협력 강사 147명을 배치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탄탄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배치, 1수업 2교사제를 중학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1수업 2교사제는 두 명(교사, 협력 강사)의 교사가 협력하여 개별적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모든 학생의 소외 없는 학습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도학교 16교와 일반 학교 112교를 선정, 선도학교에는 2-3명, 일반 학교에는 1명씩 총 147명의 협력 강사를 배치했다. 김성용 기자

선도학교는 잠재적 부진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업 내 지원' 모델을 개발해 올해 연말에는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현장에 배치된 협력 강사는 초등학교 1-2학년(국어·수학)과 3-6학년(국어·수학·영어), 중·1-3학년 교과를 중심으로 주당 14시간 이내의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 코티징(2명 이상의 교사가 함께 수업을 준비·진행·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을 수행한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학습 습관 형성, 수업 집중과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선도학교를 운영했던 한 교사는 "28명이 함께 공부하는 교실이 스마트기기가 자주 활용되면서 일반 학습 역량뿐만 아니라 학습 도구의 활용 능력도 차이를 보이는데 협력 교사의 도움으로 학습이 느린 학생들이 점점 성장하고 집중하게 됐다"라는 사례를 전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수업 모델을 마련 지원한다. 김성용 기자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4



구미시 산동읍, 인구 3만 명 시대 개막...

구미시 산동읍은 4공단과 확장단지 조성으로 2019년 인구 2만 명을 기록했다. 2021년 1월 산동읍 승격과 5공단 조성, 계속 되는 확장단지 입주 등 주목받는 거주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3만 명제 산동읍민은 4월 18일 출생자로, 산동읍은 '산동읍 인구 3만 명 시대 개막' 기념행사를 열고, 대상자 부모에게 축하의 마음을 담은 기

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했다. 대상 아동의 부친인 구모 씨는 '산동읍으로 전 입 후 아이 출생신고와 함께 3만 명제 축하 기념 행사라는 큰 환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산동읍 전입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구미 달달한 낭만 야시장 통런

지역경제 살리는 마중물되다 27일 열린 개막식 3만명 몰려

구미 달달한 낭만 야시장에 둘째 날인 토요일 3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야시장은 지난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일요일의 경우 어린이날, 12월 도민 체전 포함) 총 20회에 걸쳐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야시장은 26일 첫날부터 만원사세를 기록한 데 이어, 27일 개막식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정도로 붐비며 3만 명이 방문해 성공적인 개막을 알렸다. 일부 매대에서는 첫날 평소 매출의 180%, 개막식에는 350%의 매출을 올렸다.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매대에서는 첫날 400%, 개막식 600%에 달하는 판매고를 올리며 조기 완판됐다. 새마을 중앙시장의 상인들은 "이토록 사람이 몰릴 줄 몰랐다. 골병들 정도로 힘들지만, 시장의 활기를 느껴 힘을 얻고 있으며, 음식을 더 준비하지 못해 아쉽다"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원도심 부흥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야시장은 이수욱 새마을중앙시장 상인회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미대 최성철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진들의 노력이 성과를 이뤘다. 다른 야시장과 차별화를 위해 구미새마을중앙시장만의 메뉴 개발을 위한 품평회 등 8차례의 판매자 교육과 야시장 매대 실습교육을 했고,

메뉴에 대한 판매자별 맞춤식 전문적 컨설팅이 진행됐다. 남우현 한국외식업협회 구미시지부 회장과 조경남 대한민국한식포럼 경북연합회 회장의 푸드페스티벌에서의 안전 확보, 청결한 환경관리 방법이 더해졌다. 야시장 개막식에는 박현빈을 비롯한 정다경의 폭발적인 공연과 함께 젊은 층을 겨냥한 도토리 캐리커처, 퍼스널 컬러 진단, 레트로 사진관 등 색다른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한 달 전 벚꽃 시즌엔 지난 셋째에 6만 명이 몰리며 구미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번 야시장을 통해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꿀템 도시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앞으로 해외 유튜버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이은진 기자



2024 예천활축제 5월 3일 개막... 과녁 정조준

한천체육공원 일대서 6일까지 나흘간 열려



전국 최대 규모 체험형 대표축제인 '2024 예천 활축제'가 새달 3일 막을 내린다. 대회는 새달 6일 까지 예천 한천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2024 예천활축제는 '히트다! Hit! 예천!'이라는 주제로 '활'로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와 어린이날 주간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활 전시관에서는 왜 예천이 활의 도시인지, 예천 활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세계의 활문화를 조명한다. 예천 출신의 김성락 공장의 활 제작 시연 등 활의 역사와 전통을 알린다. 예천활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백미, '예천활공선전-활의 전쟁'에서는 서로 편을 먹고 삼국시대 격전지였던 예천의 어렵성과, 원산성 전투를 재현한다. 특히 매일 32강 토너먼트제로 운영하여 매일 90만원씩 총 360만원의 시상금도 지급한다. 기존 활사바이벌, 활쏘기 체험, 필드아저리, 이벤트 활 등 남녀노소 누구나 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활놀이터에서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찾아오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키자니아어

린이 직업체험, 열기구체험, 해병대 보트체험, 에어바운스 등을 제공하며, 로드기차, 트램펄린, 암벽등반, 밸런스바이크, 신나는 오락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공연프로그램으로 축제 첫날 3일 개막식에서는 국립도립국악단의 공연으로 축제의 포문을 열고, 탄파라페밀리, 강해연, 이엘, 다이나믹 듀오의 축하공연과 불꽃쇼로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킨다. 둘째 날인 4일에는 제9회 예천전국가오제, 어린이날 셋째 날에는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마지막 날에는 스페이스A, 김유하, 김원준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으로 마무리된다. 행사기간 중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 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은 매일 이어진다. 활축제에서는 1일 체험권을 운영한다. 1일 체험권 소지자에 한해 행사장 내 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다. 1일 체험권을 7000원에 구입하면 예천사랑 상품권 5000원을 돌려줘 지역 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기간 동안 회룡포에서는 봄꽃축제, 예천 곤충생태원에서는 '어린이날 아가자기 축제' 등 활기 넘치는 다양한 축제-행사로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한다. 활축제와 예천곤충생태원 두 곳 모두 방문할 계획이라면 영수증을 버리면 안된다. 영수증 제시하면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2024 예천활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며 특별한 추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와 체험프로그램을 정성스레 마련했으니 이번 어린이날 연휴에는 꼭 예천군을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명욱 기자

경산시청 육상팀, 큰일 해냈다

시즌 첫 전국육상대회 금3·은2·동1 '금빛 질주'



경산시가 '2024 여수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 올해 기본 좋은 첫 출발을 알렸다. 대회는 지난 23-25일까지 전남 여수시 전남여수망마경기장내 육상경기장에서 열렸다. 대회에서 김유진이 여자 5000m에서 16분 34초 34, 1500m에서 4분 22초 46으로 금메달을 획득 2관왕을 차지하며 중장거리의 강자다운 실력을 과시했다. 김수빈은 10종경기에서 6,538점으로 금메달, 장대높이뛰기에서 4m를 뛰어 동메달을 차지해 올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일현이 남자 원반던지기 결선에서 51m 20을 던져 은메달을, 여자부 3200m 계주에 흥해인, 차지연, 김지혜, 김유진이 출전한 진도군청에 이어 9분 38초 09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산시청 김태환 감독은 "선수들이 동계 훈련을 열심히 잘 소화해 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대회들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육상팀 감독과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시에서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신경운 기자

심정보, '대한민국 지방의정부봉사상' 수상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신으로 헌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의원 연구단체 활동으로 의원역량강화에도 전력을 다해왔다. 집행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원활한 군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인근 시·군과의 의정 협력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타의 모범이 되는 등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심 의장은 "지역의 봉사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한 것뿐인데, 이런 상을 받아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미경 기자

눈물의 여왕 촬영지, 문경 관광 명소 우뚝!

철로 자전거 구랑리역 에코월드 등 관광객 북적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김수현, 김지원 주연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 덕분에 문경시 곳곳이 관광객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눈물의 여왕'은 2023년 5월부터 문경읍 용연리와 문경시의 수려한 자연 및 관광지 등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쾰즈 그룹 제비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흥해인(김지원 분)과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김수현 분), 3년 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이 드라마 인기를 힘입어 극중 용두리로 표현된 문경읍 용연리와 읍소재지 방문객이 늘고 있다. 지난 20일(13회), 21일(14회)은 백현우, 흥해인의

데이트 장소인 철로자전거 구랑리역과 흥수철(과동연, 천다혜(이주빈))가 놀러 온 놀이공원인 에코월드 등 문경시 주요 관광시설이 노출되어 더 많은 관광객이 문경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는 '눈물의 여왕'이 tvN 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해외 관광객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극 중 용두리 슈퍼와 같은 인기 촬영 세트 재설치 등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드라마 제작사와 협의 중에 있다. '눈물의 여왕'은 지난 21일 방송분(14회)이 최고 26%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28일(16회) 마지막 회가 방영되었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문경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다수의 촬영장 등 드라마, 영화 제작 환경이 우수한 도시로 지역 활성 시 적극 지원할 테니 제작사들이 많은 방문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칠곡군,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상담실 운영

칠곡군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을 찾아가 처리해주는 '지적현장 민원상담실'을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상담실은 민원토지와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을 편성했다.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등 토지 관련 민원 전반과 생활민원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상담현장에서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 사전연락없이 방문시 업무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생기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전화로 사전 상담 일자를 예약하는 민원방문상담 예약제와 주요 군정사항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은 "지속적으로 운영, 주민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 및 군정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잇단 승전보

소프트테니스, 육상 씨름 전국제패 영예



문경시 체육을 대표하는 소프트테니스, 육상, 씨름단은 현재 전국을 제패하고 있다. 소프트테니스단은 지난 2월 안성에서 열린 '2024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 3명(김범준, 문대용, 진희운), 여자 4명(송지연, 김유진, 엄예진, 황보민) 총 7명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 현재 진전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세계대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육상단은 지난 23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 참가, 조하

림(3000mSc) 1위, 이동욱(1500m) 3위, 김학수(10,000m) 3위, 단체전 4x1,500mR(계주) 3위에 입상하는 등 2024년 첫 대회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3000mSc(장애물)에서 1위를 차지한 조하림(28세) 선수는 현 한국신기록 보유자이다. 씨름단은 지난 2월 태안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 김보경(한라급) 선수의 한라장사를 시작으로 4월 22일 문경시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속씨름 문경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하여 흥승찬(태백급) 선수가 생애 첫 태백장사에 등극했다. 기세를 몰아 다음날인 24일 황성회(금강급) 선수도 '금강장사 결정전'에 김태하(수원특례시청)를 상대로 3-2로 승리하며 개인통산 3번째 황소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신한국문경시장은 "스포츠-관광 도시 문경시 홍보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실업선수단이 현재 다방면으로 종목 상관없이 각종 전국 단위 대회에 참가, 국가대표 선수 발탁, 대회 우승 등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감독,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경주페이 · 먹깨비 혜택으로 풍성한 5월 만든다

경주시가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경주페이는 월 40만원 사용한도를 유지하되 캐시백 지급률을 7~10%로 상향한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3000원 할인쿠폰 이벤트를 선보인다. 5월 1~8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먹깨비 어플에서 주문 시 쿠폰을 적용해 결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먹깨비 고객센터(1644-7817) 또는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유동인구 감소와 빈 점포 증가로 위축된 중심상권 내 자체 할인을 진행하는 하는 특별할인 가맹점은 기존 31곳에서 50곳으로 확대했다.



내·외국인 농촌인 농가 큰 보탬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률이 평균 56% 경주시 이탈률 0% 기록 농가수요인원 100%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의 어느 한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경주시가 내·외국인 근로자 적정 수급으로 농촌지역 인력난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농촌지역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대응, △외국인(캄보디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촌인력중개센터(내국인)를 운영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앞서 2022년 60명의 외국인이 지역 농가에 머물면서 현장실

습에 참여하는 농업연수 프로그램을 성공리 마무리했다. 지난해 첫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 4월 현재까지 캄보디아인 444명이 유치됐다. 향후 156명이 추가입국돼 올 연말까지 총 6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유치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률이 평균 56%에 반해 경주시는 이탈률 0%, 농가수요인원 100% 입국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재입국을 통한 생산효율 극대화 △이주 여성 3명으로 구성된 통역 순환 모니터링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지원 △농가 특성에 알맞은 근로자 농가 직접 선발 등의 요인으로 해석된다. 신규 근로자를 90일 체류자격으로 근로 후 성실 근로자로 선발되면 5개월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해 토마토, 딸기, 부추 등 영농현장에 재투입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근로자와 농가 간 소통을 위해 분국 가족의 이주 여성 3명으로 구성된 통역 순환 배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등록수수료,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첫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경주농협이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역할을 담당한다. 이 제도로 농가에서는 숙식과 편의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단기 고용도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통한 안정적 인력 수급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021년 양남농협을 시작으로 2022년 농어업회의소가 추가 됐으며, 올해는 안강·강동 북경주 지역 일순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강농협이 개설됐다. 중개센터는 국내 구직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매칭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전담인력 인건비, 현장실습 교육비, 농작업자 교통·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중개실적은 지난해 767명, 올 4월 19일 기준 1062명의 성과를 올렸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규모 다품목이라는 지역 농업특성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중개센터를 적절히 활용해 농촌인력 수급 운영·관리 국내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각 농가에서도 두 제도의 장·단점을 활용해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부패 · 청렴 종합시책 본격 가동

주낙영, '청렴한 조직문화 적극 행정 방침 짚는다'

경주시가 종합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한 청렴시책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202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3대 추진전략, 7개 전략과제 및 18개 세부과제를 확정지었다. 올해 △기관장 주권 취약분야 소통활동 전개 및 리더십 강화 △청렴 리버스 멘토링을 통한 세대 공감형성 △부패취약분야 감사를 통한 자체 점검기능 강화에 집중한다. 또 △인사 분야 소통창구 활성화로 조직문화 개선 △청렴시민감사관 참여 확대를 통한 행정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지정해 실천해 나간다. 국가 청렴정책의 기조인 '공정 사회' 개념을 반영하고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주낙영 시장의 올 2월 청렴 기고문과 간부회의에서 매번 강조한 '공직자의 청렴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해 시민 감동과 내·외부 체감도 향상을 도모한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청렴시책 효과성 개선을 위해 내·외부 의견수렴, 부패연관성 및 환경 분석, 전문가 자문, 감사사례 반영 등 직원들이 제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책을 보강했다. 청렴인식 분야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고위직의 클린경주추진기확대, 부서장급의 청렴책임관제, 신규직원 위주의 청렴주니어보드 청렴조직체계를 공고히 한다. 청렴시책 추진의 성과인 부패 취약분야 개선 사항은 제반 규정이나 운영지침 마련 등으로 제도화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청렴정책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외부적으로는 경주시 시민감사관과 유관기관 등 민·관협업 거버넌스 구축을 더욱 확대해 청렴문화 확산을 이룩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4년 경주시 반부패·청렴 종합시책 추진으로 청렴 최상위 도시 위상에 걸맞은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청렴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금성회 탄소중립 실천 참여 공동 선언

· 일시 : 2024년 4월 26일(금) 11:00 · 장소 : 황룡원 금강홀

경주지역 75개 기관단체, 탄소중립 실천 참여 공동 선언

민간주도 실천 동력 강화, 탄소중립 실천 문화 정착

경주지역 75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금성회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한다. 시는 지난 26일 황룡원 금강홀에서 '경주시 금성회 탄소중립 실천 참여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민간산학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 구축과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실천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행사는 지난 18일 지역 17개 사회단체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이행 협약'과 지난 22일 환경단체회원 등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의 후속 조치다.

시는 이번 탄소중립 실천 참여에 주요 기관단체들의 동참이 이끌어냄으로 민간주도의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탄소중립은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실천수칙"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에 공동선언을 통해 큰 힘을 보태주시 각 기관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주 제3회 감포항 가자미 축제 성료...

동경주 대표 축제인 '제3회 경주 감포항 가자미 축제'가 지난 26,27일 이틀간 감포항 남방과 제 일대에서 성황리 마무리됐다. 감포읍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고유가·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고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첫날은 민속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가요제, 먹거리장터, 지역특산물 판매, 수산물 무료 시식회, i-net TV스타쇼 콘서트 등이 이어져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과 귀, 입을 즐겁게 했다. 가자미 낚시대회, 어린이 가자미 그리기 및 동시 쓰기대회 등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지난해보다 많아져 다양한 연령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경주시수협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물 '가자미'를 특가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가 마련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경주 에코플레이 로드'에 15만명 다녀갔다

먹·볼거리 가득한 차 없는 거리 축제 에코플레이 로드누적 방문 인산인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봄꽃과 함께 돌담길을 걸으며 다양한 공연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경주 에코플레이 로드'가 대관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5~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관원 돌담길(계림로)에서 '2024 경주 에코플레이 로드'가 누적 입장객 15만명을 기록하며 종료됐다. 시는 행사기간 시설물 설치와 공연 무대 마련, 입장객 안전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계림로 '황남빵 사거리'부

터 '쪽샘 공영주차장'까지 6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했다. 시의 이같은 노력 덕분에 주말이면 인파와 차량이 뒤섞여 혼란을 초래했던 대관원 돌담길에 프리마켓, 푸드트럭 및 공연 등으로 채워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돌담길에 도에 및 화훼 수제품 만들기 행사를 준비한데다, 만개한 봄꽃에 어울리는 케이팝 커버밴드, 비보잉 등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경주시는 행사 기간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대응원 동문 △수영식당 옆 길 △침성대 방향 안내소 옆길 등을 대피로로 활용하는 매뉴얼까지 수립하면서 안전한 행사를 치렀다는 평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행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관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문체부 공모 2년 연속 선정

기초 지자체 중 유일 선정 국비 3억 8000만원 확보...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 국제회의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해 이어 경주시는 2년 연속 '국제회의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이라는 영예를 얻게 됐다. 앞서 시는 2022년 12월 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 규모로 문체부 주관 국제회의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문체부는 국제회의의 복합지구 자치단체 대상 국제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구내 공간 활용·기반 조성, 국제회의의 집적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국·도비를 포함해 올해 총 7억 6000만원을 들여 '경주 국제회의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경주 국제회의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활성화 △직접시설 지원사업을 통한 협력마케팅 △첨단기술을 활용한 환경개선 및 교통접근성 강화 △지역특화 콘텐츠 활용 브랜딩 활성화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전사복합산업(MICE) 인프라를 더욱 강화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 국제회의의 복합지구는 경주의 관광 및 전사복합산업(MICE)을 이끌어 가는 중심 역할을 계속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형 글로벌 국제회의도시로의 도약은 물론 2025 APEC 정상회의를 경주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강 두류공업지역 환경분야 특별 점검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쾌적·깨끗한 도시만들기 앞장

경주시가 안강읍 두류리 공업지역의 45곳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2곳에 대해 환경법 위반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다. 점검 시제취한 악취시료 8건에 대해서는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의뢰해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4~26일까지 대기·폐수·악취·폐기물 등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해 점검을 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박남수 안강읍 민간환경감시단장은 "예전에 비해 악취가 많이 개선됐고 기업체의 환경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체감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달산면, 경관개선 사업 꽃길 조성

영덕군 달산면 매일리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 유희지 5개소에 화단을 조성하고 화초류를 심는 등 경관개선 활동을 펼쳤다.

김명환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김 이장은 “마을 경관개선 사업을 꾸준히 펼쳐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운영

청송군은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8282인원처리 이동반'과 더불어 생활 속 위생상태를 개선해 주는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은 세탁과 건조가 가능한 특수차량으로 8개 읍·면을 순회, 가정에서 빨래하기 어려운 부피가 큰 이불을 세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살균과 건조까지 해주어 주민들의 위생상태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재난현장 복구에 활용, 지역복지 증진에 힘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 일손부족 직원들 뭉쳤다

영양군 청기면은 영농이 어렵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1·2차에 나눠 농촌일손돕기를 한다. 1차는 지난 26일 실시했다.

1차 농촌일손돕기에는 청기면 사무소 직원 8명이 참여, 고령으로 인해 영농이 어려운 청기면 도구리의 농가를 찾아, 영농철 고추 식재 전 필요한 자재 옮기기 작업을 했다.

청기면사무소 일손돕기 지원을 통해, 농가의 수고를 한시름 덜어 주었고, 이른 아침부터 작업을 한 결과,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청기면 직원들은 “청기면 농가를 위해 봉사하니 너무 뿌듯했다. 다음에도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할테니,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라며 입을 모았다.

영덕군 축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식

동해안 최고 아름다운 항구 트레킹 명소 블루로드 거점

동해안 최고의 아름다운 항구 꼽히는 영덕군 축산항이 개항된지 100년이다.

축산항 100주년 기념식이 지난 25일 영덕북부수협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부근 물양장에서 열렸다.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경북도와 영덕군이 후원한 행사 김광열 영덕군수, 지역수협장, 어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역 풍물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축산



항의 오랜 역사와 변화상을 담은 사진전과 개항 100주년을 주제로 제작한 기념 영상 상영 등이 펼쳐졌다.

특별 제작한 축산항 100주년 기념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00년 동안 지역경제

의 중심점 역할을 한 축산항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항 100년 역사의 증인이자 주역인 주민 여러분과 어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1924년 개항한 축산항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해양에 우뚝 솟은 돌섬 죽도산이 장관을 이뤄 강구항·대진항과 함께 영덕군의 주요 항구이자 미항으로 꼽힌다.

최고의 해양 트레킹 명소로 각광받는 블루로드의 주요 거점이다.

영덕군민의 소울푸드인 물가지미의 주산지로서

매년 5월 초를 전후로 물가지미 축제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영덕군은 축산항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 준공되는 '축산 블루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국지도 20호선 축산항~도곡간 개량 사업을 통해 축산항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300억 원이 투입되는 축산항 하천제해 예방사업, 2026년 준공으로 220억 원이 투입되는 축산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안전성과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조여은 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활동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공무원과 산림보호 활동을 하는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이 포항시 하옥계곡에서 산림정화활동 및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기동단속을 했다.

올해로 54번째의 생일을 맞은 지구의 날은 지구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전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의 슬로건인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오히려 좋아!'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지구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도 돌아온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포항시 하옥계곡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 및 산과 계곡을 찾은 행락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와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를 했다.

활동이 끝난 이후 봄철에 성행하는 임산물 불법 채취 기동단속을 병행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지구의 날을 통해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허가 임산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창명 기자

울릉군,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울릉군은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16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 현장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사업장으로 현재 45%의 공정률로 추진 중인 울릉공항건설공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LPG배관공급사업 등 울릉읍 지역 6개소를 점검했다.

학포항 방파제 및 부두정비와 다목적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95억원의 학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태하리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서면 4개소이다.

열악한 울릉 주택환경 개선을 위해 현포에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추진 중인 울릉 섬청년 보금자리 사업, 관음도 연도교와 트레킹코스 정비 위한 사업비 20억원의 섬목관음도 연도교 정비사업 등 북면 6개소를 점검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해빙기 도래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동절기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완벽히 점검해야 한다.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 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환 기자

울진군 2024 새마을 환경살리기 발대식

지난해 124만2900kg
자원 재활용품 수집
2억5600여 만원 수입

울진군은 지난 25일 울진군새마을회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을 기념한 2024 새마을 환경살리기 발대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손병복 울진군수 및 군의원 등 주요 내



산 좋고 물 좋은 영양 산나물을 만나러 가자

19회 영양 산나물축제 개최 '별이 빛나는 밤에 음악회' 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고기굽터서 산나물...오감만족

매년 얼었던 땅이 녹으면 잃어버린 식욕을 돋우는 씹새름한 산나물이 봄향기를 퍼뜨린다.

봄이 절정에 이르는 5월 9일이 되면 매년 우리의 입맛과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 산나물축제'가 영양군 영양읍 일대와 일월산에서 펼쳐진다.

갓가지 산나물을 간장이나 참기름에 살짝 무쳐

먹으면 밥 한 그릇 푹딱이고, 삼겹살과 함께 쌈채소로 즐기면 고기 한 근 금방이다.

다이어트가 걱정된다면 무미건조했던 샐러드에 색다른 즐거움을 더해 먹을 수도 있다.

쌈새름한 맛 뒤에 오는 산나물의 개운한 뒷맛처럼 산나물에 포함된 갖가지 영양소는 겨울철 찌뿌동했던 몸을 풀어주는데 제격이다.

'영양 산나물축제'에서는 산 좋고 물 좋은 영양에서 나고 자란 산나물을 산지에서 직접 채취하고 만나볼 수 있다.

일월산과 맹동산 기슭에서 자란 어수리, 곰취, 참나물, 취나물 등은 향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다고 할 만큼 향과 영양이 뛰어나다.

이 외에도 참취, 개미취, 가얏취, 수리취, 각시취 등 나물은 산채 요리의 단골 손님으로 비빔밥으로 해먹으면 입안 가득 봄을 채울 수 있다.

올해 산나물축제는 행사장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위원들이 활동, 또한 야간까지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장터는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힘쓴다.

'별이 빛나는 밤에 콘서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고기굽터서 산나물을 먹으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콘서트' 외에도 축제기간동안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으니 5월 9일에서 12일 놓치지 말고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권은동 기자

청송 가장 중요한 산업은 사과산업...

청송군, 2024 고품질 청송사과 생산 총력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다. '청송사과'가 2024 대한민국대표브랜드 사과부문에서 12년 연속대상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

다. 하지만 사과 생산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일손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또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청송군은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사업을 추진,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다.

미세살수 장치 및 열상방상팬, 냉해경감제를 지원, 봄철 저온피해에 대응하고 있다.

향후 병충해에 강한 우량묘목을 보급, 고품질 사과 생산에 최선을 다한다.

사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과원 조성을 지원, 청송사과 재배시스템 혁신을 위한 미래형과원 조성에 앞장

선다. 사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올해 생산량은 8만 톤이 예상, 향후 3~5년 후에는 1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적엽 청송사과' 시범생산 5000톤을 목표로 생산비 절감정책을 추진한다.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가 및 소비자 대상으로 사업 홍보활동을 지속, 국내 사과 시장 유통방식의 혁신을 선도하고 판매증진에도 힘쓴다. 기후변화로 재배적지가 북상, 강원도 지역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해 황금사과라 불리는 시나노 골드와 같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사과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은 대한민국에서 사과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다. 지금과 같이 전국 1등 최고 명품브랜드 명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윤병문 기자

울릉 백년대계 청사진 밑그림 나왔다

울릉종합발전계획 주민 설명회 개최

울릉군은 4월 25일(목)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글로벌 그린 U시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설명회는 '울릉·흑산도 등 국토외곽 면적지

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민이 바라는 종합발전계획 및 추진과정을 알렸다.

K-U시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사업에 대해 알리는 자리가 됐다.

K-U시티 관련 발표를 맡은 한동대학교는 한동울릉캠퍼스의 필요성을 알리고 싱크탱크 역할을 강조, 올해 안에 한동해지역혁신원 설립을 약속하는 등 울릉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은환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최기문 영천시장은 29일 오전의 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3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영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29일 오후 현 안업추진및공모사업 등 건의를 위해 정부대전청 사문화재정을 방문한다.



달콤 시원한 고품질 수박 고령 우곡수박 첫 출하

고령군 우곡면에서 고품질 친환경 우곡 수박이 지난 25일 첫 출하됐다.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1월 중순 사이 정식한 지역 특산물인 수박 수확에 들어갔다. 우곡 수박은 친환경 농산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지역 농가의 고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5일 박일수 씨의 하우스 2동 첫 출하를 시작으로 각 농가마다 출하를 시작했으며 5월 10일부터 우곡그린영농조합법인 집하장에서 직판 예정이다.

정원정 우곡면장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우곡 수박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건강한 양육문화 만들기 영주 30인의 아빠단 발대

영주시는 지난 27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제5기 MOM 편한 3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MOM 편한 30인의 아빠단'은 영주시가 아빠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이색사업으로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제5기 MOM 편한 30인의 아빠단'은 오는 9월까지 매월 아빠와 함께하는 캠핑, 플로깅 및 힐링건강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 육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양육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선정된 30가정의 가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설문조사를 시작으로 'MOM 편한 30인의 아빠단' 사업 소개, 아빠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지원

의성군이 365생활권 조성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갔다.

군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동부생활권 활성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장관,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21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본격적인 농촌협약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



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365 생활권 조성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

도록 설계된 제도다.

의성군은 지난해 전담부서 조직개편, 추진체계 작동, 생활권-여건-계층분석 등을 바탕으로 우선 생활권을 동부생활권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6월 공모에 선정돼 농식품부와 전문가의 자문과 승인을 거쳐 농촌협약 대상사업을 확정지었다.

이번 농촌협약을 통해 의성군은 2028년까지 5년간 대상사업 366억원, 연계사업 758억원을 동부생활권 10개 읍면(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안평면)에 투입해 생활SOC시설 확충과 다양한 배후

마을 서비스 전달을 목표로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균형적인 지역발전 을 도모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성읍 중심지활성화사업 (150억원) △금성면-봉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80억원) △단촌면-점곡면-옥산면-사곡면-춘산면-가음면-안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70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27억원) 등이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협약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동부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차 입국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의성군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32명이 지난 25일 입국했다.

지난 3월 1차로 56명이 입국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5개월간 관내 농가에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이다.

근로자 입국 즉시, 마약검사-기초건강검진과 입국설명회를 개최해 농가주와 계절근로자 대상 근로조건, 인권 침해 방지 등 안전교육 및 통장개설 신청(농협은행 의성군지부 협조)을 했다.

또 의성경찰서와 보건소의 협조로 범죄예방, 마약예방 교육도 추가로 실시한 뒤 사과, 고추, 가지배 등 관내 18개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일손 부족현상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의성군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의 다수는 전년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입국 근로자들로 배치됨에 따라 근로자의 농가 적응을 높이고 농가 또한 숙련된 근로자와 일하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5개월간 근로기간을 마치고 농가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캄보디아와의 인력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고용주와 근로자분들이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여건 및 근로현장에 로사향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고령군 산골허니팜 역량강화 교육 실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일환 고령군양봉협회 회원으로 구성

고령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고령군양봉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산골허니팜 액션그룹과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총 8회에 걸쳐 전문가를 초빙해 양봉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마지막 교육으로 지난 26일 개실마을에서 한국양봉협회 부회장이자 서울대 이시혁 교수와 경북대평생교육원 김동선 교수를 모시고 양봉과

봉침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회원들의 역량을 한층 더 다지는 기회가 됐다.

산골허니팜 액션그룹은 신활력사업의 역량강화 아카데미 기초 및 심화과정을 이수했으며 현실화지원사업 2단계에 선정돼 양봉 상품 판매 고도화, 수정벌 및 종봉사업, 양봉교육 및 후계양봉인 양성교육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고령군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의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을 육성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영백 기자

봉화군, 베트남 뜨선시 우호교류...상생발전 다져

봉화군 우호교류단은 국제재매도시인 베트남 뜨선시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뜨선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봉화군의 국제재매도시인 베트남 뜨선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리(Ly)왕조 건국기념축제인 '덴도(DO-temple)' 축제를 축하하고, 봉화군과 뜨선시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보부상 공연단도 동행해 덴도 축제 개막식 때 보부상 재연 마당놀이 공연을 선보이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렸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뜨선시와의 자매결연은 양 도시 간의 문화, 예술,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바휘 뜨선시장은 "덴도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해주신 봉화군 우호교류단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로 K-베트남리 조성사업의 성공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 부스 운영 최우수

영천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여해 부스운영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지자체, 유관기관 및 기업 등 115개 업체, 총 283개의 부스가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각종 볼거리·먹거리를 소개했으며,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영천시는 박람회에 참가해 영천 대표 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알리고 왔다. 특히 인스타그램 팔로워 등 이벤트 진행을 통해 참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영천의 매력을 많은 분들께 알렸다. 앞으로도 영천을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 관광산업을 살리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영천시, 최무선 과학 꿈잔치 개최 로봇 마스터 활용한 AI 체험 눈길

학생·학부모 등 3000여명 참석

영천시는 제57회 과학의 날을 기념해 지난 26-27일 양일간 최무선과학관에서 '2024 최무선과학 꿈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의의를 둔 영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우리 고장의 과학자 최무선을 재조명하고 과학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다.

다양하고 신나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관내 초·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거여초등학교에서 진행된 'LED 바닷속 워터볼 만들기'와 포은초등학교에서 준비한 '바다를 담은 감성 디퓨저 만들기', 신녕초등학교 '자외선 탱탱볼 만들기'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영천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로봇 마스터'를 활용한 AI체험 또한 학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번 행사는 아리랑대무시범단에서 준비한 태

무 공연,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최무선영상체험관 4D·VR 체험, 합포 체험 시뮬레이션, 유물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준비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영천 출신인 최무선 장군의 위대함과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의 꿈나무들이 과학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최무선 장군의 위대함을 되새겨보고, 다양하고 신나는 과학체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미래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과학 꿈잔치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개최식을 마치고 시는 영천의 중요 시정 가운데 하나인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영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펼쳤다.

한편 영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공립과학관 전시개선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변화하는 문화콘텐츠 요구에 발맞춰 과학문화에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과학 체험 공간을 올해 초부터 선보이고 있다.

최은하 기자



성주군 현안사업 추진 국·도비 확보 총력

경북도청 찾아 지원 건의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 26일, 김성우 군의장, 실과소장 등 20여 명과 함께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국비확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이군수는 경북도에 성주군의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성주주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지방도905호선(성주-김천)4차로 확장공사도 직접 시행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사 건립비 지원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립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남동강변 성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4억원) △초전-벽전간(군도4호선)포장공사(4억원) △수륜 계정천(계정1리) 정비공사(2억원)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10억원의 예산 지원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선포에 따른 성

주군의 저출생 대응 전략인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 완성을 위한 4대 핵심분야(출산·양육, 안전돌봄, 교육지원, 주거정책)와 1운동(인식·제도개선)을 설명하고 주요 핵심사업인 '성주형 24시 통달돌봄 패키지'구축을 위한 저출생 극복 포괄사업비 4억원 지원도 활발하게 건의했다.

또한 최근 기상 여건 악화로 참외 출하량이 주춤하고 있어 참외영양제 무상 공급(3억원), 재해인정(52억원 국비 확보), 쿠팡과의 mou체결 등 성주군의 발빠른 대응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참외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매출 확대와 참외 농가의 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경북도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도청방문은 정부 긴축재정으로 그 어느때보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경북도와외의 긴밀한 소통 강화와 협력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추진했으며, 도청방문을 시작으로 중앙부처 방문 등 현안사업 해결 및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재훈 기자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새마을 환경살리기 성공



새마을 운동은 1969년 8월 초 경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에서 수해 복구 현장을 목격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으로 1970년부터 시작됐다. 청도군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으로 대표되는 민족중흥운동으로 '할 수 있다'와 '하면 된다'의 긍정적 사고 및 능동적 실천이 결합된 조국근대화 운동이다. 1969년 8월 초순,故박정희 대통령이 경남도의 유례없이 참혹했던 수해현장을 시찰하고자 전용열차를 이용, 경부선 청도지역을 통과하던 중, 신도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수해를 복구하는 광경을 보고 대통령 전용열차를 잠시 멈추게 했다.

그곳에서 마을 안길 및 하천, 산림 등 마을 전체가 잘 정비된 모습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어 "모든 농촌을 이 마을처럼 가꾸었으면 좋겠다" 라고 착안한 것이 새마을운동이 태동하는 계기다. 1970년 4월 22일, 한해대책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청도군 청도읍 신도마을을 소개하고 전국의 농촌마을을 신도마을을 본보기로 잘 가꾸어 볼 것을 지시, 농촌의 "잘 살기 운동"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새마을운동의 효시가 돼 조국근대화의 기틀이 됐다. 청도군 청도읍 신도마을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주목받게 됐다. 어쨌든 '큰 사업이나 문화가 처음 생기게 된 곳'이라는 발상지의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청도군 청도읍 신도마을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

새마을 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청도 지역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70년 7~8월 문화공보부에서 국토 보존 자조의 마을의 영상이 신도 마을에서 촬영됐다. 1970년 7월 24일 대통령 비서실은 '청도읍 신도동은 자력 개발의 의욕이 왕성, 마을을 잘 가꾸고 충실하게 잘사는 마을로 전국에 시범이 될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천명, 신도동과 그 주변을 국토 보존 사업의 시범 지구로 조성했다. 1972년 3월 24일 박정희 대통령의 청도군 운문면 방음리 방문으로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로서 청도군의 위상은 전국적으로 파급됐다. 1998년 12월 8일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25회 재활용품경진대회
700여톤 재활용품 수거
청도새마을 환경살리기
21세기 새마을운동이자
제2 글로벌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시키자 총매진**

운동의 메카로써 전국 각지에서 견학단이 다녀갔다. 2009년 4월 '새마을 운동 발상지 기념관'을 개관,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조명하고 국민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됐다.

체총연맹 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전국 유일이자 최대규모의 자원순환 및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인 '2024 청도군 새마을 환경살리기'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오늘 이 자리는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및 제14회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고, 글로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청도만의 특색있는 일상생활 속 실천 솔루션인 '청도군 새마을 환경살리기'를 통해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을 알리는 터닝포인트(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과 제14회

아리랑'을 참석한 주요 내빈과 함께 무대 위에서 불렀다. '청도군 새마을 환경살리기'가 21세기 새마을 운동이자 제2의 글로벌 새마을운동으로의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더욱 뜻깊은 공연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재활용품경진대회'는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212개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폐자원을 직접 수거하고 재활용해 폐자원을 자원화함으로써 자원순환 구조 정착 및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올해는 9개 읍면에서 총 350여 명의 재활용품을 실은 차량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고지, 고철 및 농약비닐 등 총 700여 톤의 재활용품을 수거, 명실상부 전국 최대규모의 자원순환 운동이자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운동인 청도군 새마을 환경살리기의 대미를 장식했다. 재활용품경진대회를 통해 모금된 판매수의 금은 매년 관내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및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등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위한 소중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전인주 새마을회장은 "이번 새마을 환경살리기 행사에 적극 동참해 준 새마을지도자, 212개 마을 이장 및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의 새마을지도자로서 자부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청도군 새마을 발전을 위한 밑일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서 새마을 지도자들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천명했다. 청도군의 경우에도 '제2의 새마을 운동'에 발맞춰 1999년 환경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군민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02년 제8회 늘 푸름 환경 대상 단체 우수상, 2005년 이후 경상북도 새마을 운동 종합 평가 최우수상 등을 수상, 새마을 운동 발상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 신도 마을은 '새마을

청도군의 새마을 운동은 온리에 퍼지고 있다.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기념 및 탄소중립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을 맞게 됐다. 청도군(은 지난 26일 청도전 둔지에서 (사)청도군새마을회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2024 청도군 새마을환경살리기'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임상준 환경부차관, 이만희 청도·영천 국회의원, 양윤호 새마을중앙지도자협의회장, 신창연 한국자원순환단

새마을의 날 기념 및 탄소중립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대회 주제와 함께 청도 새마을여성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북도 무형문화재 청도 차산농악의 본공연, 유공자 표창 및 퍼포먼스 등 의식행사를 비롯, 재활용품경진대회, 새마을 사진전의 부대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도새마을아리랑보존회와 청도새마을어린이합창단의 합동 무대로 시작된 퍼포먼스 공연에선 '청도새마을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